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

배주희¹, 최윤숙^{1*}, 김남희²

¹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²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전인간호과학연구소

Influence factors on Care Burden among Spouses of Young Women with Breast Cancer

Joo-Hee Bae¹, Yooun-Sook Choi^{1*}, Nam-Hee Kim²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²Kosi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olistic Nursing Science,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 희망 및 사회적 지지가 돌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3개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이거나 외래를 방문한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 130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mea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beta=-.41, p<.001$)였고, 다음으로 부부 친밀감($\beta=-.26, p=.001$), 나이($\beta=-.18, p=.009$), 지각한 경제적 상태($\beta=-.14, p=.039$)를 포함하여, 총 4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4.41, p<.001$).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부부 친밀감, 나이, 지각한 경제상태를 고려한 차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are burden among spouses of young women afflicted with breast cancer. Totally, 130 spouses of young women with breast cancer, who were hospitalized or visited one of the three general hospitals in B city, were enrolled for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between January 3 to March 31, 2016. The mea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SPSS/WIN 18.0 program. Social support had the greatest impact on care burden ($\beta=-0.41, p<0.001$), followed by marital intimacy ($\beta=-0.26, p=0.001$), age ($\beta=-0.18, p=0.009$) and perceived economic status ($\beta=-0.14, p=0.039$). The explanatory power was determined to be 42% ($F=24.41, p<0.001$). Our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to develop social support programs that help reduce the care burden of spouses of young women afflicted with breast cancer. Moreover, there is a need to develop differentiated programs by considering marital intimacy, age and perceived economic status.

Keywords : Marital intimacy, Hope, Social support, Care burden, Spouses, young breast cancer

*Corresponding Author : Yooun-Sook Choi(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email: choiys@eagle.kit.ac.kr

Received December 5, 2019

Accepted February 7, 2020

Revised January 8, 2020

Published February 29,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유방암은 여성암 중 발생률 1위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에서 40대에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1]. 서구에 비해 폐경 전 유방암과 40대 유방암 발생률이 높고, 40세 이하 환자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2].

젊은 유방암 환자는 가족발달 시기상 사회적인 활동,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의 역할이 많아 가족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3].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으로 변화되었고, 부부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4]. 부인의 유방암은 부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배우자는 유방암 환자에게 중요한 일차적인 지지원으로써 유방암 환자인 부인을 지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5-7].

젊은 유방암 환자는 공격적인 치료, 조기폐경, 높은 재발율의 심각성 뿐 아니라 생존자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 길기에 부인을 돌보는 배우자는 그에 따라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3,4,8]. 배우자는 유방암 아내의 치료 및 회복과정 동안 심리적 변화, 사회적 변화, 스트레스 등을 겪게 되는데[9,10], 특히 40대 전후 세대는 가족발달과업 중 자녀의 양육과 교육, 가정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가장으로서 책임감,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의 변화와 부부관계의 갈등이 생기면서 돌봄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4,11]. 이에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 친밀감이란 갈등 해결력, 정서적 친밀정도, 결혼에 대한 안정감, 성적만족, 부부간의 자신감이나 자존감, 동반자 의식, 독립적 가족관계 유지 및 개방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부부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친밀한 정도를 말한다[12]. 부부관계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기능은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부 관계는 전체가족의 적응능력과 기능을 악화 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9].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친밀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 친밀감이 높을수록 가족기능과 부부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12,13]. 따라서 부부 친밀감은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희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원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을 견디게 하는 핵심자원이다[14,15].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겪는 암 환자 가족 돌봄자에게 있어 희망이야말로 여러가지 다른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미래에 대한 도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16].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희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희망은 배우자를 지지하기 위한 용기를 주며 단순한 긍정의 의미를 넘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전략으로써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7]. Inger[17]의 진행성 암환자 가족 부담감 연구에서 가족과 환자의 희망은 가족의 부담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희망정도가 낮을수록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희망은 돌봄 부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환자 돌봄자의 돌봄 부담감, 스트레스,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18-20]. 선행연구에서 유방암 환자 배우자는 아내의 주 돌봄 제공자로서의 다중 역할을 해야하는 부담감을 가지지만, 가족 친지들의 도움으로 집안일의 분담과 정서적 지지를 얻고, 직장과 지인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4].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더 다양한 대처방식을 이용하고, 가족의 부담감이 낮았다[21,22].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젊은 유방암 환자의 일차 지지원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돌봄 부담감과 영향요인으로 부부 친밀감, 희망 및 사회적 지지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지지, 및 돌봄 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부부 친밀감, 사회적 지지, 희망 및 돌봄 부담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다섯째,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진행하기 앞서 B광역시 소재 D의학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가 승인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D-1511-009-002).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3개의 종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방문 중인 40대 이하 젊은 유방암 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기준에 따라 편의 표출하였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1) 40대 이하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의 배우자
- 2) 유방암 환자와 동거중인 배우자
- 3)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설문지에 답할 수 있는 자.

자료수집은 2016년 1월 3일 부터 2016년 3월 31일 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5, 예측변수 6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09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140부를 배포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부분을 고려하여 배포시 각 설문지마다 봉투에 넣고, 회수시 봉투를 사용하게 하여 개인정보 누출이 없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적절한 설문지 8부, 미수거 2부를 제외한 130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부부 친밀감

본 연구에서는 부부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와 Olson[23]의 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s(PAIR)척도, Hetherington과 Soeken[24]의 Intimate Relationship Scale(IRS), Stanley와 Markman[25]의 Commitment Inventory(CI), 그리고 Stevens와 Labate[26]의 Sharing of Hurts(SOH)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이경희[27]가 변용해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으로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경희(1998)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67$ 이었다.

2.3.2 희망

희망 측정도구는 Herth[28]가 암환자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윤수정[2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2개 문항의 4점 Likert척도를 연구자가 5점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1점 '그렇지 않다' 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9$ 이었고, 윤수정[2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7$ 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Zimet 등[30]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신준섭과 이영분[3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의 세 자원으로 부터 인지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12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인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3.4 돌봄 부담감

돌봄 부담감은 Given 등[32]이 개발한 CRA(Caregiver Reaction Assessment)를 도구를 이영선[33]이 번안수정한 CRA-K(Caregiver Reaction Assessment- Korean Version)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생활양식변화, 가족 협조부족,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의 4개 영역으로 총 17문항을 사용한 척도를 의미한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선[33]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 지지, 돌봄 부담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 4)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 지지, 돌봄 부담감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예측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6세이고, 40~49세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대학 졸업자 이상이 56.9%로 가장 많았다. 89.2%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경제의 주책임자였다. 가정의 자녀는 2명이 54.6%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59.2%였다. 지각한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기간은 15년 이상이 62.3%로 나타났다[Table 1].

3.2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 지지, 돌봄 부담감 정도

대상자의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 지지 및 돌봄 부담감 정도는 다음과 같다. 부부 친밀감은 5점 만점에 총 평균 3.45±.53점 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친밀감 3.52±.51점, 성적 친밀감 3.26±.64점, 정서적 친밀감 3.55±.72점으로 나타났다. 희망은 5점 만점에 3.68±.63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총 평균은 3.63±.70점으로, 하위 영역 중 가족은 3.81±.744점, 친구는 3.47±.822점, 타인은 3.61±.3.61±.78점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감은 5점 만점에 총 평균 2.42±.61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생활양식변화 2.59±.80점, 경제적 부담 2.60±.71점, 가족협조부족 2.04±.70점, 신체적 부담 2.56±.6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years)	≤39	21(16.2)	46.11±5.59
	40-49	72(55.4)	
	50≤	37(28.5)	
Educational	≤Middle school	4(3.1)	
	High school	52(40.0)	
	≥University	74(56.9)	
Occupation	Yes	116(89.2)	
	No	14(10.8)	
Breadwinner	Me	113(86.9)	
	Wife	11(8.5)	
	Others	6(4.6)	
children (count)	0	11(8.5)	
	1	27(20.8)	
	2	71(54.6)	
	≥3	21(16.2)	
Religion	Yes	77(59.2)	
	No	53(40.8)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21(16.2)	
	Middle	87(66.9)	
	High	22(16.9)	
Duration of marriage (year)	5<	13(10.0)	
	5-10	19(14.6)	
	11-15	17(13.1)	
	>15	81(62.3)	

Table 2. Score of Marital intimacy, Hope, Social Support and Care Burden

(N=130)

Variables	Sub Variables	M±SD	Min-Max
Marital intimacy	Cognitive intimacy	3.52±.51	1-5
	Sexual intimacy	3.26±.64	
	Affective intimacy	3.55±.72	
	Total	3.45±.53	
Hope	Total	3.68±.63	1-5
Social support	Family	3.81±.744	1-5
	Friends	3.47±.822	
	Significant Other	3.61±.78	
	Total	3.63±.70	
Care Burden	Disrupted schedule	2.59±.80	1-5
	Financial problems	2.60±.71	
	Lack of family support	2.04±.70	
	Health problems	2.56±.68	
	Total	2.42±.6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부담감을 비교한 결과 나이, 지각한 경제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40~49세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보다 돌봄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22). 그리고 지각한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지각하는 군이 여유롭거나, 보통으로 지각하는 군보다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Table 3].

Table 3. Care Burden of Spous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Care Burden		
		M±SD	t/F(p)	Scheffé
Age(years)	≤39a	2.49±.56	3.92 (.022)	b>c
	40-49b	2.53±.60		
	50≤c	2.19±.60		
Educational	≤Middle school	1.88±.38	1.26 (.291)	
	High school	2.40±.54		
	≥University	2.47±.61		
Occupation	Yes	2.43±.60	0.22 (.827)	
	No	2.39±.68		
Breadwinner	Me	2.44±.59	0.65 (.252)	
	Wife	2.22±.71		
	Others	2.40±.68		
children (count)	0	2.44±.41	0.02 (.997)	
	1	2.43±.64		
	2	2.41±.63		
	≥3	2.44±.59		
Religion	Yes	2.40±.57	-0.64 (.522)	
	No	2.47±.66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a	2.25±.85	6.23 (.003)	a>bc
	Middle ^b	2.37±.49		
	High ^c	2.83±.63		
Duration of marriage (year)	5<	2.48±.49	0.157 (.925)	
	5-10	2.49±.58		
	11-15	2.38±.66		
	>15	2.41±.63		

3.4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 지지, 돌봄 부담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 지지 및 돌봄 부담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돌봄 부담감과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로 부적 상관관계였고($r=-.57, p<.001$), 부부 친밀감($r=-.49, p<.001$), 희망($r=-.55, p<.001$)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

회적 지지는 부부 친밀감($r=.53, p<.001$), 희망($r=.77,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부 친밀감과 희망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66, p<.001$)[Table 4].

3.5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 부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사회적 지지, 부부 친밀감, 희망 변수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나이, 지각한 경제상태 변수를 반영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명목 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부부 친밀감, 나이, 지각한 경제적 상태는 진입하였고, 희망은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희망을 제외한 진입 독립변수들로 다시 분석한 후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 한계값이 0.72~0.96의 범위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값은 1.03~1.41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8로 기준값 2에 매우 근접하고 잔차들간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된다.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지지($\beta=-.41, p<.001$)였으며, 부부 친밀감($\beta=-.26, p=.001$), 나이($\beta=-.18, p=.009$), 지각한 경제상태($\beta=-.14, p=.039$)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총 42%였다($F=24.41, p<.001$)[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Marital intimacy, Hope, Social Support and Care Burden

(N=130)

Variables	Marital intimacy	Hope	Social Support	Care Burden
Marital intimacy	1	.66(<.001)	.53(<.001)	-.49(<.001)
Cognitive intimacy		.53(<.001)	.41(<.001)	-.39(<.001)
Sexual intimacy		.59(<.001)	.51(<.001)	-.46(<.001)
Affective intimacy		.56(<.001)	.41(<.001)	-.42(<.001)
Hope	.66(<.001)	1	.77(<.001)	-.55(<.001)
Social support	.53(<.001)	.77(<.001)	1	-.57(<.001)
Family	.66(<.001)	.76(<.001)		-.59(<.001)
Friends	.34(<.001)	.63(<.001)		-.45(<.001)
Significant Other	.42(<.001)	.66(<.001)		-.49(<.001)
Care Burden	-.49(<.001)	-.55(<.001)	-.57(<.001)	1
Disrupted schedule	-.25(.004)	-.33(<.001)	-.42(<.001)	
Financial problems	-.42(<.001)	-.45(<.001)	-.45(<.001)	
Lack of family support	-.61(<.001)	-.60(<.001)	-.55(<.001)	
Health problems	-.38(<.001)	-.44(<.001)	-.47(<.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are Burden among Spouses of Young Women with Breast Cancer

(N=130)

Variables	Care Burden							
	B	SE	β	t	p	Tolerance	VIF	Adj. R2
(Constant)	4.82	.38		12.54	<.001			
Social support	-.35	.06	-.41	-5.19	<.001	.72	1.38	.32
Marital intimacy	-.30	.09	-.26	-3.32	.001	.70	1.41	.36
Age	-.16	.06	-.18	-2.64	.009	.96	1.03	.40
Perceived economic status	.15	.07	-.14	-2.08	.039	.94	1.05	.42

Durbin-Watson= 2.08 Adj. R2=.42, F=24.4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 지지 및 돌봄 부담감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대장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은 사회적 지지, 부부 친밀감, 나이, 지각한 경제상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총 42%였다. 사회적 지지가 돌봄 부담감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이며, 부부 친밀감, 나이, 지각한 경제상태가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 부담감 정도는 전체 평균평점 2.42점으로, 하위영역 중 경제적 부담감(2.60점)이 가장 높았고, 가족 협조부족(2.04점)이 가장 낮았다. 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인정, 한인영 [34]의 연구에서 여성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하위 영역 중 생활양식변화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이 100%이며, 89.2%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주 경제 책임자이다. 이에 돌봄 부담감의 하위영역 중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선행연구의 여성 대상자에서 생활양식변화가 높은 점수를 나타나 이는 성별의 특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이는 가정구성원의 역할이 잘 나타난 것으로 환자가 남성일 경우는 여성 배우자는 가정과 환자간호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활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환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므로 가정일과 부인의 간병을 가사 도우미, 간병인 또는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지불이 있고, 가장으로써의 경제적 책임감이 강하기에 돌봄 부담감 중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주 돌봄자의 돌봄 부담감

중재 연구 시 돌봄 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감소를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국내에 연구가 많지 않아 이와 가장 유사한 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김영란, 유미숙 [2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방암 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인정, 한인영 [3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에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도움이다. 본 연구의 돌봄 부담감을 살펴보면 하위영역 중 가족협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상응하여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에서 가족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 유방암 환자 배우자는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활동을 책임져야 하므로,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권은지, 이명선 [4]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 배우자들은 다중역할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화된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면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핵가족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암환자가 있는 가정에는 가족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젊은 유방암 여성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는 간병, 가사, 자녀케어 등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부부관계는 유방암 환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써 본 연구에서 부부 친밀감은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친밀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영경 [7]의 젊은 유방암

부부의 연구에서 부부 친밀감이 높은 배우자는 삶의 질의 '자기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유양숙, 황경혜, 조옥희[10]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 부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해결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유방암 환자인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필요하며, 유방암 환자 배우자에게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에 대처하도록 도와 그들이 환자인 부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국내 연구에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부부 친밀감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유방암 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부 친밀감에 대한 연구와 중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35]. 현재 유방암 생존자들을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하거나 배우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나이와 지각한 경제적 상태가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세대 구분에서 40대가 돌봄 부담감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40대의 가족발달과업과 상응하는 결과로 이 시기는 자녀의 교육과 양육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도 세대에 따라 돌봄 부담감이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각한 경제적 상태가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돌봄 부담감의 하위영역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윤숙[19]의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돌봄 부담감 연구에서도 지각한 경제상태는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태는 평범한 가정에서 가족의 치료 과정 중 돌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환자 치료 및 가정 경제에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희망 변수는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진입하기 못하였는데, 이는 희망이 사회적 지지와 상관관계($r=.77, p<.001$)가 높았고, 이는 통계처리 시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0대 이하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부 친밀감, 희망, 사회적 지지 및 돌봄 부담감 정도, 변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주

는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 부부 친밀감, 나이, 경제적 상태였으며, 그 중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부부 친밀감 뿐 아니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나이,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젊은 유방암 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대상자인 배우자와 유방암 환자인 아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젊은 유방암 환자의 배우자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 중 희망이 영향요인으로 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폐경기 이후 유방암 환자 배우자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National Cancer Center, cancer viewed by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s://www.cancer.go.kr/lav1/S1T639C642/contents.do> (accessed Nov. 29, 2019)
- [2]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Breast Cancer Facts & Figures 2018, p.22,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18, pp.8-9.
- [3] Cho, Ok-Hee, Yoo, Yang-Sook, Suh, Young-Jin, "Parenting Stress, Parental Behaviors and Need for Parental Education Relative to Children Characteristics of Young Women with Breast Canc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13, No.6, pp.543-553, Dec. 2011.
- [4] Kwon, Eun-jin, Yi, Myung-sun, "Husbands' Caring Experiences for Women with Breast Cancer in Korea", *Asian Oncology Nursing*, Vol.13, No.1, pp. 18-27, Mar. 2013. DOI: <http://dx.doi.org/10.5388/aon.2013.13.1.18>
- [5] Kang, Ji-young, Seo, Eun-young, "The Influence of Stress, Spousal Support, and Resilience on the ways of Coping among Women with Breast Cancer", *Asian Oncology Nursing*, Vol.15, No.1, pp.1-8, Mar. 2015. DOI: <http://dx.doi.org/10.5388/aon.2015.15.1.1>
- [6] Duggleby W, Bally J, Cooper D, Doell H, Thomas R, "Engaging hope: The experiences of male spouses of women with breast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Vol. 39, No. 4, pp. 400-406, Jul. 2012.

- DOI: <http://dx.doi.org/10.1188/12.ONF.400-406>
- [7] Oh, Yeong-Kyong, *Impact of depression and marital intimacy on the quality of life of young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based on APIMeM*,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 Seoul, Korea, pp.3, 2018.
- [8] Lee, In-Sook, Ham, Eun-Ock, "The Stress, Coping, Mood, and Burden of Spouses of Breast cancer Patients Across the Treatment Phases", *Journal of militrynursing research*. Vol.29, No.-, pp.81-93, Mar. 2011.
- [9] Cha, Kyeong-Sook, Yoo, Yang-Sook, Cho, Ok-Hee,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of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Asian Oncology Nursing*, Vol.12, No. 1, pp.20-26, Dec. 2012.
DOI:<http://dx.doi.org/10.5388/aon.2012.12.1.20>
- [10] Yoo, Yang-Sook, Hwang, Kyung-Hye, Cho, Ok-Hee "Conflict Resolution Styles, Marital Intimacy and Family Functions of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5, No.1, pp.33-40, Feb. 2013.
DOI:<http://dx.doi.org/10.7475/kjan.2013.25.1.33>
- [11] Kim, In-Gyu, A study on the Korean's Family Role Developmental Tasks Perceived by General people, *Journal of Sciences*, Vol.24, No.2, pp.47-74, 2009.
- [12] Waring, E. M., Reddon, J. R., "The measurement of intimacy in marriage: the Waring intimacy Questionnaire", *Journal of Clinical*, Vol.39, No.1, pp.53-57, Jan, 1983.
- [13] Manne S, Badr H., "Intimacy and relationship processes in couples' psychosocial adaptation to cancer", *Cancer*, Vol.112, No.-, pp.2541-2555, Jun, 2008.
- [14] Tae, Young-Sook, Kim, Mi-Yea, "Influencing Factors on Hope Among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sian Oncology Nursing*. Vol.9, No.2, pp.86-94, Jul, 2009.
- [15] Wendy Duggleby, Lorraine Holtslander, Jari Kylma, Vicky Duncan, Chad Hammond, Allison Williams, "Metasynthesis of the Hope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s of Persons With Chronic Illnes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20, No.2, pp.148-158, Jan. 2010.
DOI:<http://doi.org/10.1177/1049732309358329>
- [16] Chioi, Bo-Ra,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and Post-traumatic Growth in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Cancer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Family Function*,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pp.6, 2018.
- [17] Inger Utne, Christine Miaskowski, Steven M. Paul, Tone Rustøen T., "Association between hope and burden reported by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Support Care Cancer*, Vol.21, No. 9, pp. 2527-2535, Apr. 2013.
DOI:<http://dx.doi.org/10.1007/s00520-013-1824-5>
- [18] Lee, In-Jeong, Kim, Mi-You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burden and marital adjustment in cancer patients' spous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3, No.3, pp.125-150. Sep. 2012.
DOI:<https://doi.org/10.16999/kasws.2012.43.3.125>
- [19] Choi, Yooun-sook, Bae, Joo-Hee, Kim, Nam-Hee, Tae, Young-sook, "Factors Influencing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Cancer Patients", *Asian Oncology Nursing*, Vol.16, No.1, pp.20-29, Mar, 2016.
DOI:<http://dx.doi.org/10.5388/aon.2016.16.1.20>
- [20] Kim, Nam-Hee, Tae, Young-Sook, Choi, Yooun-Sook, Bae, Joo-Hee, "Influencing Factors on Stress in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Being Admitted in Rehabilitation Cent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7, No.2, pp.188-201, Feb.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188>
- [21] Kim, Young-Lan, Yoo, Mee-Soo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and the Social Support of Family Caregivers of Breast Cancer Pati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Vol.13, No.2, pp.5-24. May. 2008.
- [22] In, Sook-Lee, *(The)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spouses of women with breast cancer*.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8.
- [23] Mark T. Schaefer, David H., Olson, "Assessing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7, No.1, pp.47-60, Jan. 1981.
DOI: <https://doi.org/10.1111/j.1752-0606.1981.tb01351.x>
- [24] Hetherington, S. E., Soeken, K. L., "Measuring changes in intimacy and sexuality: A self-administered scale",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Vol. 16, No.3, pp.155-163. Jan. 1990.
DOI: <https://doi.org/10.1080/01614576.1990.11074987>
- [25] Staley, S. M., Markman, H. J.,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 and Family*, Vol.54, No.3, pp.595-608, Aug. 1992.
DOI:<https://doi.org/10.2307/353245>
- [26] Stevens, F. E., L'Abate, L.,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theory-derived measure of intimac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17, No.4, pp.359-368. Jun. 2007.
DOI:<http://dx.doi.org/10.1080/01926188908250782>
- [27] Lee, Kyung-hee, *Marriage types classified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8
- [28] Herth, K.,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hope",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Vol.5, No.1, pp.39-51. Spring 1991.
- [29] Tae, Young-Sook, Youn, Su-Jung, "Effects of a For giveness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Hope and Quality of life in Woman Cancer Patients", *Asian Oncology Nursing*, Vol.6, No.2, pp.111-120, Aug. 2006.
- [30] Zimert, G.D., Dahelm, N.W., Farley, G. K.,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2, No.1, pp.30-41, Jun. 1988.
DOI: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31] Sin Jun-Sub, Lee, Young-Bu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sychosocial Well-being of the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37, No.-, pp.241-269. Apr. 1999.
- [32] Given, C. W., Given, B., Stommel, M., Collins, C., King, S., & Franklin, S., "The caregiver reaction assessment (CRA) for caregivers to persons with chronic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15, No.4, pp.271-283, Aug. 1992.
DOI:<https://doi.org/10.1002/nur.4770150406>
- [33] Rhee, Young-Sun, *A Study of Effect on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Caregiver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eeling of burden and Growth*,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9.
- [34] Lee, In-Jeong, Han, In-Young, "Care burden among partners of cancer pati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0, No. -, pp.197-223, Nov. 2010.
DOI: <http://dx.doi.org/10.16975/kjfs.w.2010.30.007>
- [35] Kang, Hee-Sun, Yeom, Soo Young, Jun, Eun-Young,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in Korea: Systematic Review",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9, No.3, pp. 153-16, Sep. 2013.
DOI:<http://dx.doi.org/10.4069/kiwhn.2013.19.3.153>

배 주 희(Joo-Hee Bae)

[정회원]



- 2011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2018년 8월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8년 9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종양간호, 성인간호

최 윤 숙(Yooun-Sook Choi)

[정회원]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종양간호, 성인간호

김 남 희(Nam-Hee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2017년 8월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9월 ~ 2019년 8월 :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전인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만성 및 재활간호, 성인간호